

PEOPLE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타 대학 학생들과 교류...국내외 철도산업 이해”

송원대 철도운전학과 ‘KR 레일로 유스캠프’ 참가 철도 인재 양성 특강·현장 견학 등 2박 3일 과정

송원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학과 학생 8명이 지난 6~8일 강원도 양양군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KR 레일로 유스 캠프’에 참가해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이번 캠프는 국가철도공단이 산학협력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프로그램으로, 송원대를 비롯해 한국교통대, 우송대, KAIST 등 4개 대학에서 총 3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K-철도의 세계 진출 전략 △철도산업의 미래 비전 등 전문 특강과 함께 △춘천~속초 KTX 건설 현장 견학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송원대 철도운전시스템학과장 김양수 교수는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국내외 철도 건설·

운영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을 폭넓게 이해해 전공 학습과 철도 공기업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대 심지성(철운과 20학번) 학생은 “국내외 철도산업의 미래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다른 대학 학생들과 교류하며 유익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송원대는 현재 철도운전시스템학과, 철도운전·관제시스템학과, 철도차량시스템학과, 철도안전경영학과 등 4개 학과에서 총 122명의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철도운전 및 관제사 자격 동시취득이 가능하며, 철도종합실습실을 기반으로 한 ‘송원철도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높은 취



송원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학과 학생 8명이 지난 6~8일 강원도 양양군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KR 레일로 유스 캠프’에 참가했다.

업력을 자랑한다. 송원대 철도아카데미도 현재 또는 행정실(062-360-5582), 학교 블로그·SNS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학과 사무실(062-360-5923)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장흥군노인복지관 평생교육·취미반 프로그램 운영

장흥군노인복지관은 오는 11월까지 2025년 하반기 평생교육·취미반가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에는 주민등록상 장흥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315명이 수강생으로 참여한다.

평생교육 2개 반과 취미반가 10개 반 등 총 12개 반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배움과 여가,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강좌가 준비됐다.

대기자 107명은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수강 기회를 받게 되며, 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평생학습과 여가 활성화를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수강생 어르신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척 기다려진다. 덕분에 생활에 활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하반기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다양한 교육과 여가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광주 동부경찰 아동안전지킴이집 현장간담회

광주 동부경찰청은 아동안전지킴이집 22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안전지킴이집 표지를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고, 업주를 상대로 아동안전지킴이집 행동수칙, 범죄 유형별 대처요령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부경찰청은 업주와 업무 담당자 간 SNS 밴드 개설을 통한 신고 연락망을 구축해 사건 발생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안전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과 각종 범죄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김중호 동부경찰서장은 “아동에 대한 위기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고 임시로 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아동 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화순 만연사 행선 스님, 인재 양성 300만원 기탁

신도 이재영 불자 50만원 기부도

화순군은 최근 만연사 행선 주지스님이 화순장학회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뜻깊은 나눔이다. 행선 스님은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을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만연사 신도 이재영 불자도 장학금 50만원을 기부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이재영 불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구북구 이사장은 “행선 주지스님과 이재영 불자



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학생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기부해 주신 장학금은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1208년(고려 희종 4년)에 창건된 만연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유서 깊은 사찰로 다양한 불교문화 행사와 지역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서구 금호2동, 전통주로 만나는 인문학 강연

광주 서구가 전통주를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특별한 강연을 선보였다.



서구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권경민 강사를 초청해 ‘맛보다 깊은 전통주, 전통주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권 강사는 대한민국 주류대상 심사위원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인문학자문위원으로 정부 중앙부처, 기업, 학교 등에서 1500회 이상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강연은 전통주의 기원과 시대별 변화, 주생활(酒生活) 속의 철학과 예술, 현대 전통주의 재해석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더불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문학적 통찰

을 제시함으로써 금호2동 마을 BII인 ‘품격 높은 인문학’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시간이 됐다.

임선미 금호2동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우리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기고, 인문학의 가치를 깨닫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겠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전남도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와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 찾아가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교육

10월까지 고용주 인식 개선·인권침해 재발 방지 등

전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와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오는 10월까지 22개 시군을 돌며 추진한다.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노동·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참여해 고용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제도, 인권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 피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지난 7월 31일 전남도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후속대책’의 핵심 실행 과제 일환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고용주의 인식 개선 없이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교육 범위와 당초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 사업장과 전남지역 모든 일반사업장으로 넓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의 핵심 규정, 실제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요령 등이다.

특히 단순한 법률 설명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나주시청에서 열린 첫 교육에선 나주 외국인 고용사업장 고용주 200여명이 참석해 ‘2025 외국인 고용사업장 노동인권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심재명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현장에서의 존중과 배려, 법과 제도의 준수는 인권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순회 교육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특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국어 인권 인식 제고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음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댄스봉사자=어르신 댄스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파

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물레너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부음 △김공님씨 별세. 박현식(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모친상=13일 오전. 전남 고흥군 고흥종합병원장례식장 3층 6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061-830-3300.

운세 (음력 6월 21일)

48년생 쉬쉬쉬 하는 것이 좋겠다
60년생 현재 있는 그대로 보이라
72년생 도모하는 일이 호황을 맞게 된다
84년생 유용한 요건을 이루겠다
96년생 가볍게 통과 할 것이다
51년생 옛인연을 우연히 상회하게 된다
63년생 삼자로 인해 상처를 받으니 주의하라
75년생 지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라
87년생 외출 중 사고의 우려가 있다
99년생 사람과의 인연을 중시하라
54년생 관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66년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78년생 배우자 때문에 경사가 따른다
90년생 열정을 쏟아 부어야만 한다
49년생 지인에게 사기 당할 우려가 있다
61년생 어려움이 닦쳐도 지혜는 생긱는다
73년생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날
85년생 만으면 복이 따른다
97년생 요행수는 절대 금물
52년생 귀와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라
64년생 마음에 중심이 없어 흔들린다
76년생 귀와 뜻을 확실하게 해낼 것이다
88년생 거래는 서두지 말고 순리를 따라라
55년생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
67년생 실수를 함으로써 문제가 생긴다
79년생 권유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라
91년생 친구를 택하는 것이 우선이다
58년생 손해 보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라
70년생 본능 적이라면 위험해지는 법
82년생 지갑 속에 많은 돈을 넣어 두지 말라
94년생 인과응보의 세상 이치에 놀랄 것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50년생 생이별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62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결단하라
74년생 초지일관하면 그 뜻을 이루게 된다
86년생 절대로 자존심을 잃지 말라
98년생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보라
53년생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한다
65년생 일상적이지만 의미가 없다
77년생 돈이 들어올 것이다
89년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56년생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68년생 귀인을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만난다
80년생 끝내는 이루어 질 것이다
92년생 회의를 느끼게 될 것
59년생 궁극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
71년생 서두르지 말고 추이를 관망하라
83년생 도움이 되지 않으면 청산하자
95년생 과정이 너무 심하다